

열린세상



김광

(주)케이티 대표이사

하반기 한국경제 맑을까 흐릴까

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향후 정책 기대감이 증시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크리스토퍼 윌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관세가 10%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연준이 올해 하반기 중 기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가 10% 수준에서 통합되고 7월까지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연준은 하반기 내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연준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강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의 무역 상대국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부 중국산 제품에는 3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최대 50%에 달하는 상호 관세는 7월까지 유예된 상태이지만, 만약 10%까지 낮춰지지 않으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감세법안'이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직후 윌러 이사의 인터뷰가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1기 당시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부채상환을 늘리는 동시에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2.75%에서 2.50%로 인하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높아진 통상 불확실성, 경기 하방 위험 등에 대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2월에 이어 5월에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한국은행이 2월에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도 이후 집계된 여러 가지 지표들의 동향을 보

면 하방 조정이 불가피하다. 실제 상당수의 전망기관에서는 1.0%를 밑도는 성장을 수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한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일정 정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될 여지가 크다.

하반기에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며 여전히 높은 성장의 하방 위험과 함께 세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경기 부양적인 정책 행보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하반기 2차 추경 편성 등과 같은 재정 정책과의 공조 역시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논거로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2.25%기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 출범하면 경제 성장

한은이 소개한 '재정집체'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 등에서 높은 부채상환의 장기화로 재정 지출 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특히 원-달러 환율상승과 유류세 인하 축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물가 안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도 걱정된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환경들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면 내란으로 흔들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인구 적은데 매출 증가 '강진군의 비밀'

읍 백반·한정식 업소 월평균 매출액은 1,3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 월평균 매출 건수 225건으로 21.6%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체질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강진군 지역상권이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와 관광객 소비 체순환 구조가 실질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인상적인 요인은 유동인구 1인당 월 소비액이다. 강진군은 42.8만원으로 인근 지역 20만 원대와 비교하면 강진군 방문객의 소비 전환율 자체가 구조적으로 다른 수준이다. 강진군 성과는 우연이 아니다. 청자축제, 병영성축제, 수국길축제, 하백축제, 강진만 춤추는 길대축제 등 지역 축제로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강진을 찾고 있으며 반값여행과 지역화폐가 이들을 지역 상권 소비자로 전환시키는 구조가 강진군 전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반값여행, 축제 등이 관광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반증이다.

최근 강진군이 축제와 지역경제를 연계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반값여행이라는 파격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 관광객 체류일수 증가, 읍내 상권 유입, 지역화폐 재소비 삼각 구도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유력인사가 강진을 방문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강진분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반값여행 즐기고 가세요~"라고 외치는 보니 강진 반값여행이 유명해진 한가보다. 강진군을 찾는 이유는 뭘까. 조선시대 최고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와 오늘날 강진군의 반값강

진여행,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강진 방문의 주된 이유라고 본다.

다른 지자체가 축제, 지역화폐, 상권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거나 보여주지 않던 행사로만 추진한 것과 근본적 차이다. 강진군이 보여준 지역 경제 선순환 모델은 향후 국가 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강진군의 농민수당, 생활인구 등 시책들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사례가 다수다. 강진 육아수당 60만원 지급 정책은 출산율 2배라는 결과를 보이자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반값 강진 관광'과 '지역화폐' 연계 정책 역시 곧 6·3 대선 이후 정부 공식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살고 지방은 관광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반값여행과 축제로 유명한 강진군은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결과를 낳은 걸까. 지난 해 강진군 전체 예산 6,335억 원 중 반값강진여행에 소비한 금액은 30억원, 축제는 4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를 상회했다. 1%의 예산으로 관광객 증가, 생활인구 증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면 살림을 아주 잘 한거다. 강진군 공직자들의 씩씩한 노력으로 지난해 국도비 확보액이 2,795억원이었다. 일 잘하는 강진군 공직자 소리도 들을 만하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시골 지자체 성공 사례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국가적 표준 모델이다. 강진군이 보여준 이 길이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설

지역균형발전 시작은 광주·전남부터

국민이 바라는 지역균형발전의 첫 번째 과제는 지역 특화산업단지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지역 의료기관 확충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광역교통망 확대 등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가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인이 깊이 새겨야 할 목소리다. 지방신문협회는 각 지역의 주요 종합일간지가 회원으로 있는 언론단체로 지방의 여론을 지역민과 중앙정부에 가장 없이 전달한다. 가히 국민의 목소리다.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하는 지역민은 우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였다. 먹고사는 문제가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역 특화산업단지 조성이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의료기관 확충(29%), 중앙행정기관 이전(15%), 광역교통망 확대(15%) 등을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지역 특화산업단지 조성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더구나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과

제의 선후의 순서가 다르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낙후가 가장 심하다. 반세기가 넘는 정치적 소외로부터 시작해 경제적 낙후로 이어졌다. 산업단지가 가장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의료 기관마저 턱없이 부족하다. 전남의 경우 의대조차 없다. 지역민의 의료 소외가 심각하다. 새로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광주·전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인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지역 발전을 약속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러한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기 힘들다.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누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던지 이번 만큼은 정말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느낀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모든 후보들의 약속을 믿고 싶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은 광주·전남에서부터라는 사실이다. 대선 후보들이 마음 깊이 새기길 바란다.

충장로 '홍콩의 거리' 개장 기대 크다

광주 동구 충장로에 홍콩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홍콩의 거리'가 다음 달 개장한다. '홍콩의 거리'는 충장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충장로 3가 충장로안길 5-5 일원 70m 구간의 거리에 조성한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홍콩의 거리 조성 사업은 광주 동구가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점포 밀집 지역에 2억 원을 투입해 젊은 감성을 담아내는 거리로 재탄생시켜 지역 내 청년 유동 인구를 유치,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벌써부터 '작지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콩의 거리'는 애초 올 2월 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대상지의 임대료 조정 문제 등으로 늦어졌다. 지난해 4월 동구와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사업'을 체결한 업체가 지역 건설경기 악화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5월로 예정된 몽키터미널 개관을 전격 연기하고 '홍콩의 거리' 조성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차질을 빚은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13일 동구청과 임대인, 주변 상인들의 노력으로 사업 대상지의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면서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홍콩의 거리'는 단순한 테마 거리를 넘어 실제 홍콩 현지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레스토랑, 주점, 디지털 카페, 위스키 바 등 다채로운 점포들로 채워진다. 또 야외 테이블, 네온사인, 한자 조형물, 홍콩 스타일 간판 등을 설치하고 쇼핑,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로 구성한다. 충장로 전체에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물품 발주와 설계 도면 제작, 홍콩의 거리 내부 창업자 사업자 등록 등이 끝나면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간판 설치, 골목길 정비 공사를 마무리한 뒤 30일 가 오픈할 예정이다.

수십 년 동안 젊은이의 거리로 사랑 받아 온 충장로는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이자 가장 감각적인 거리지만, 1~3가에 발가지 머물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점은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홍콩의 거리' 개장은 젊은이의 활력이 넘치는 충장로의 밤거리와 함께 새로운 가게들이 문을 열고 주변 공실을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어려움을 딛고 개장하는 만큼 '홍콩의 거리'가 충장로를 대표하는 것을 넘어 광주를 상징하는 명품 거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기고



박경석

강진군 4차산업혁명을활용추진단 데이터활용팀장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featuring a QR code and contact email jndnnews@naver.com.

사진 속 세상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서 요가 즐겨요"

25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휴양객과 시민들이 '2025 상반기 부산 해양치유 관광 프로그램' 해변 요가를 하고 있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